

2016년 12월 7일, 남원읍 태흥3리 오윤생씨 댁, 김선희 조사.
오윤생(여, 1932년생, 남원읍 태흥3리)

[제보자] 봄나민 도체비엔 헌 게 벨롱벨롱해도 나 눈에는 안 비추와, 게도. 그것도 비추는 사람. 안 비추는 사람이 잇곡. 도체비도 비추는 사람. 안 비추는 사람 하는 구라. 우린 도체비를 혼 번도 못 봐서. 혼 번도.

딱 혼 번 본 거. 나, 도체비엔 헌 거 일생 살양 혼 번 봐어이. 어디 봐이냐 허믄. 그것도 오월 장마. 사람이엔 헌 건 얘기라도 주끗디 잇이믄 막 의지가 크는 거라라. 옛날 막 보리 갈 때난. 이디서 갈 때민 저 어디 감만이나 웨카? 멧 거리나 웨코? 하튼이 가름 떨어진 디라이. 떨어진 딘디 낫 에염에 신 밧인디 강 보리 묶으노렌 허난에

“오늘 보리를 몬 묶어 비어사주, 낼은 비 오민 보리 썩어 버령 안 된다.”

허난 우리 뜰 그거 으답술에 그걸 둘양 갓어이. 간 보리 묶엉으네. 혼 오월에 혼 으답시난에 어슬어슬햇어. 겨난 어둑안 어슬어슬해가난에 파랑한 불이 그디 원동네도 엉고 질도 아닌딘다. 낫 에염으로 존질존질 올라왕 똑 사름같이 걷는 것 같이 내터레 톡 들어가는 거라. 그땐 머릿발이 모소완 서는 거라. 이젠 뜰더레 모습댄 말도 못하고

“야, 가게. 집이 가게.”

“보리 어떻 헤 동.” 허관테

“내불라, 보리 젖고데고.”

집이 그냥 와낫저. 그때 혼 번, 딱 본 거. 내 눈에는 도체비는 안 뵈여. 매사름이 어디 가믄 봐짚저. 어디서도 봐져라 해도.

[조사자] 이 동네 도체비 잘 나는 디는 어디꽈?

[제보자] 도체비 잘 나는 디이. 일로 저러레 쑹 나가민 삼리 넘어사민, 저펜이 가면. 굿사 소곰막. 소곰막이엔 헌 디 있잖아. 이제 저 굴 판매햇어. 옛날이 그다가 젤로 무서운 디라낫저. 옛날에 그디 사람은 하영 아니 죽엇주만은. 옛날은 아기들이라도 죽으민 앗당 묻어부느네. 그난 그디 사름 안 사는 디고 허난 그디 강 농사 안 짓는 디난 그디 에염더레 그런 걸 앗당 하영 논 쟁이라. 게난 그디 젤 도체비 하영 난덴 허는 거.

- 핵심어 : 도체비, 벨롱 벨롱, 비추기, 파랑한 불, 소곰막